



백남준, 백남준,
그리고 백남준

2024. 11. 30. ... 2025. 3. 16.

· Nam June Paik,
· Nam June Paik,
· and Nam June Paik

· gallery 4·5





오디오 가이드



쉬운 글 해설

이 전시 브로슈어에 수록된 글과 이미지의 저작권은 부산현대미술관, 저자, 작가 및 저작권 소유자에게 있습니다. 저작물의 무단 전재, 복제, 변형, 송신을 금하며 이를 사용하려면 저작권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The text and images in this exhibition brochure are copyrighted by the Busan Museum of Contemporary Art, the authors, the artists, and other copyright holders. Unauthorized reproduction, adapt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is prohibited. Permission from the copyright holders is required for any use.

남준표 남준표 그리고 남준표

Nam June Paik
Nam June Paik
and Nam June Paik



“TV는 많은 거점을 확보할 것입니다. … 쇼핑, 도서관 조사, 여론 조사, 건강 상담, 사무실 간 데이터 전송 및 … 1001개의 새로운 애플리케이션 … TV는 정보 및 사회 구축의 새로운 에너지이며 가장 ‘브로드밴드 통신 네트워크’라고 부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의 글로벌 웹과 미디어 산업을 보자면 1974년 백남준(1932-2006)의 예측보다 더 선견지명 있는 예언은 드물다. 그는 예술과 과학의 경계를 넘나들며 끊임없이 탐구하고 직진했던 인물로, 종교를 새로운 표현 방식으로 결합하고 자신의 죽음 이후에야 실현될 기이한 기계들을 만들어 냈다. 백남준아트센터와 공동기획한 백남준의 회고전인 《백남준, 백남준, 그리고 백남준》은 누구보다 미래를 선명하게 내다본 예술가에게 헌정하는 전시이다. 이 전시는 백남준의 로봇, 기계, 악기 및 기타 예술품을 지나간 시대의 유물이 아니라 현대 상황의 섬뜩한 예언적 성물로 보여준다. 《백남준, 백남준, 그리고 백남준》 전시는 크게 3부로 나뉜다.

1부 “나의 축제는 거칠 것이 없어야 : 1960년대 초반 ~1980년대 중반”은 2층에서 플럭서스와 1963년 첫 개인전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한다. 백남준은 원래 음악가로 훈련받았으나, 결국 아방가르드 예술로 눈을 돌렸다. 그는 1960년대 플럭서스 그룹에 초대되었고, 그의 퍼포먼스는 여러 기록물과 실제 영상으로 기록되어 있다. 존 케이지와 카를하인츠 슈토크하우젠 같은 음악 혁신가들이 작곡에 대한 문화적 실험을 주도하던 시기에 백남준 역시 음악에서 실험 예술로 이동한 또 다른 클래식 아티스트였다. 플럭서스 공간에는 급진적이고 실험적인 백남준의 철학을 볼 수 있는 비디오 인터뷰, 드로잉, 사진, 포스터, 리플릿 등 여러 자료를 볼 수 있다. 발길을 옮겨 <로봇 오페라>를 지나면 가장 잘 알려진 첼리스트 살렛 무어만의 <오페라 섹스트로니크>를 만나게 된다. 아방가르드 음악, 라이브 공연, 클래식 음악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두 사람의 공통 관심사는 약 30년 동안 둘의 협업을 지탱했다.

2부 “백남준 필름”은 필름 속의 백남준이다. 따로 마련된 극장 공간에서 이번 전시 기획의 시발점이 되었던 1973년 작 <글로벌 그루브>와 백남준 관련 다큐멘터리 <백남준: 달은 가장 오래된 TV> 외 10개의 작품이 매일 상영 된다. <글로벌 그루브>에는 우리 모두가 곧 각자의 텔레비전 채널을 갖게 될 것이라는 백남준의 목소리가 담겨있다. 시작부터 진행자는 “지구상의 모든 TV 채널도 쉽게 돌려볼 수 있고 TV 가이드가 맨해튼 전화번호만큼 두꺼워질, 미래의 비디오 풍경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으며, 약 30분 길이의 이 영화는 닉슨과 존 케이지, 한국 음악가와 리듬 앤

블루스 댄서를 혼합하여 텔레비전의 상업적 목표를 뒤흔드는 환각적인 영상의 흐름을 시도하고 있다. 극장을 나오면 백남준의 평생에 걸친 선불교에 대한 탐구를 보여주는 작품들이 나타난다. 영사기, 스크린, 필름의 먼지와 흡집, 자신과 다른 관객의 그림자들이 빈 필름에 등장하는 20분 길이의 <영화를 위한 선>과 <달은 가장 오래된 TV>가 설치된 일종의 영상적 공간은 <TV 부처>와 <춧불 TV>로 계속 이어진다.

3부 “백남준의 세계 : 1980년대 후반 ~2006년”은 1층에서 마무리된다. 관람객들이 교과서에서 많이 보던 백남준의 대중적인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 이른바 198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까지 제작된 ‘TV 로봇 시리즈’와 <걸리버>, <케이지의 숲-숲의 계시>이 등장한다. 자연의 생명력과 공생하고 있는 <케이지의 숲-숲의 계시>의 티비에는 류이치 사카모토의 연주에 맞춰 오키나와 민요를 부르는 모습과 백남준, 살렛 무어먼, 존 케이지의 퍼포먼스 등 다양한 영상들이 송출된다. “무조건 순처럼 보이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 작품은 백남준이 오키나와 최북단의 무성한 밀림 숲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만큼 그의 전언에 따라 한국에서 자생하는 다양한 수종과 지표식물을 미술관 내부로 옮겨와 화려하고 풍성한 목각적 전자 풍경을 관람객들이 경험토록 제작했다. 이 전시의 마무리는 백남준의 작품 전반에 담겨있는 TV는 우리를 하나로 묶고 미래로의 여정은 순전히 행복하다는 의미를 그대로 보여주는 108개의 TV 모니터를 조합한 <108 번뇌>이다. 이 작품은 1998년 <경주세계문화엑스포>를 위해 작가가 특별히 제작한 것으로 이번 전시에서 모니터를 재정비하고 수복하여 실현한다.

《백남준, 백남준, 그리고 백남준》전은 미술관에서 그의 작품을 통해 실험의 즐거움을 만끽하고, 모든 예술 형식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에 공감하며, 세계주의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행성 안에서 협력이 얼마나 중요인지 인식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카카오톡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의 등장 전부터, 백남준은 대중매체가 다방향 커뮤니케이션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내다본 최초의 예술가였다. 넷플릭스와 케이블, 유튜브가 나오기 오래전 백남준은 예술가들이 대양을 넘어 협력할 수 있는 위성 생중계를 최초로 실현했다. 예술에서 새로운 것이 모든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시간은 앞으로 나아가다가도 되돌아가고, 스타일은 반복되고, 재구성된다. 어떤 혁신들은 막다른 길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그런 예외가 없는 혁신적인 인물을 꼽으라고 하면 백남준이지 않을까.

“TV will gain many branches...two-way interactive TV for shopping, library research, opinion polling, health consultation, inter-office data transmission, and...1,001 new applications...a nuclear energy in information and society-building, which I would call tentatively ‘Broadband Communication Network.’ There has been no prophesy about today’s global web and media industries that is as accurate as the one made by Nam June Paik in 1974. He was someone who constantly crossed back and forth over the line that divides art and science, inventing machines that gave religion a new mode of expression and would only be realized long after his death. *Nam June Paik, Nam June Paik, and Nam June Paik*, a retrospective co-hosted with the Nam June Paik Art Center, pays homage to an artist who saw the future clearer than anyone else. It shows his robots, machines, musical instruments, and various artworks not as relics of a bygone era but eerily prophetic treasures about the world in which we live. The exhibition is organized into three sections.

The first section, “My Jubilee 1st Unverhemmet: Early 1960s to Mid 1980s,” begins on the second floor with the story of Fluxus and Paik’s first solo exhibition of 1963. Trained and educated as a musician, Paik eventually turned to avant-garde art. He was invited to join Fluxus in the 1960s, with records of his performances from these years having largely survived in both video and textual format. At a time in which innovative musicians such as John Cage and Karlheinz Stockhausen were at the forefront of cultural experimentation with composing, Paik was a classical artist aiming to transition from music to experimental art. The Fluxus corner displays video interviews, drawings, photos, posters, leaflets, and other sources on Paik’s radical and experimental philosophy. After taking in *Robot Opera*, visitors will see *Opera Sextronique*, which features cellist Charlotte Moorman. Paik and Moorman’s shared interest in avant-garde music, live performance, and the sexuality of classical music launched a professional collaboration that continued for almost 30 years.

The second section, “Nam June Paik and Film,” as the title suggests, spotlights video footage of Paik. A theater-like space will be screening 10 works on Paik daily, including *Global Groove*, the 1973 piece that was the inspiration for this exhibition, and *Nam June Paik: Moon is the Oldest TV*, a documentary. *Global Groove* includes audio testimony by Paik about the fact that each of us will eventually have our own TV channel. It opens with the declaration, “This is a glimpse of a new world when you will be able to switch on every TV channel in the world and TV guides will be as thick as the Manhattan telephone book.” The approximately 30-minute piece mixes Richard Nixon, John Cage, Korean musicians, and R&B dancers to create a montage of fantasy-tinged clips that shake the foundations of television’s supposed commercial

objectives. After stepping out of the theater, visitors will see artworks that show Paik’s lifelong fascination with Zen Buddhism. A meditation-friendly space installed with *Zen for Film*, a 20-minute work made up of only a projector, blank screen, dust and scratches on the film, and shadows of oneself and other visitors, and *Moon is the Oldest TV* gives way to *TV Buddha* and *Candle TV*.

The third section, “World of Nam June Paik: late 1980s to 2006,” brings the exhibition to a close on the first floor. It displays some of Paik’s most famous works that many visitors will remember seeing in textbooks, including items from the TV Robot series, which was produced from the mid-1980s until the 2000s and *Gulliver, Forest of Cage-Revelation of the Forest* appear. The televisions in *Forest of Cage-Revelation of the Forest* coexist with the vitality of nature, displaying various videos such as Okinawan folk songs performed to the music of Ryuichi Sakamoto, alongside performances by Nam June Paik, Charlotte Moorman, and John Cage. “It has to look like a forest.” The artwork, inspired by Paik’s visit to the thick forests of Okinawa’s northern tip, offers visitors a lush electronic pastoral scene created, based on Paik’s instructions, with trees and indicator plants native to Korea. The exhibition ends with *108 Torments*, a collage of 108 TV monitors that, quite literally, embodies Paik’s belief that the TV can link all of humankind together on a journey to a future of pure happiness. It was created in 1998 specifically for the *Gyeongju World Culture Expo* and underwent monitor repairs for this exhibition.

“*Nam June Paik, Nam June Paik, and Nam June Paik*” highlights the fact that all artistic formats are connected to one another and that the art museum is a good place to enjoy the experimental genius and craziness of Paik’s creations. At the same time, it is an opportunity to recognize how important it is for us to work together, especially in a world dominated by cosmopolitanism. Paik was the first artist to foresee mass media’s transformation by multi-directional communication, long before KakaoTalk, Facebook, and Instagram. In a time before Netflix, cable television, and YouTube, Paik was the first person ever to achieve cooperation among artists in New York, Paris, Germany, and South Korea via live satellite broadcast. In the world of art, “new” does not necessarily mean “everything,” and time often backtracks after moving forward for a while. Styles repeat themselves or are rearranged, and some innovations turn out to be dead ends. If I were asked to name one person who managed to avoid all of these exceptions, I would not be able to think of anyone other than Nam June Paik.

오늘날에도 백남준을 이토록 흥미롭게 만드는 힘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우리는 그 열쇠말을 백남준이 주창했던 “아방가르드의 고고학”에서 찾고자 한다. 백남준은 비디오와 위성을 거쳐 레이저까지 항상 새로운 기술 매체에 도전하는 한편, 자신의 예술이 어디에서 기인했는지 돌아보며 그 근본을 탐구했다. 백남준은 이 과정을 ‘아방가르드의 고고학’이라고 불렀다. 예술의 최전방, 새로운과 실험정신을 상징하는 ‘아방가르드’와 과거의 것을 발굴하는 ‘고고학’이 만나는 변증법적 영역은 백남준의 예술적 성향을 그대로 드러낸다.

백남준은 열다섯 살에 피아노 선생님으로부터 들었던 ‘ 쇤베르크가 가장 극단적인 아방가르드다’라는 말에 바로 마음이 끌렸다. 마치 영혼의 깊숙한 바닥으로부터 무언가가 울려 나오기라도 하는 것처럼, 그는 ‘전위적’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일생의 방향을 정한 것이다. 백남준은 아방가르드에 관심을 보이게 된 것이 자신의 유전자로부터 유래한 것, 즉 자신의 본래의 성격에 아로새겨진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우랄 알타이 사냥꾼들이 어느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언제나 멀리 떠나 새로운 지평선을 바라보았듯이, 아방가르드즘이 자신의 삶을 항상 새로운 예술로 잡아 끄는 근원이었다고 고백했다. 우리는 왜 백남준이 그토록 ‘멀리(tele) ‘보는(vision)’, 즉 텔레비전(tele-vision)에 끌렸었는지, 그리고 왜 항상 새로운 매체를 찾아 도전했는지 이해하게 된다.

작곡가를 꿈꾸던 청년 백남준은 일본에서 공부를 마치고 독일로 건너갔다. 그곳에서 철학과 현대 음악을 공부하며 기존의 예술과는 다른 급진적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플럭서스 그룹의 일원으로 활동을 펼쳤다. 이 때부터 전자 음악과 전자 텔레비전을 이용한 예술의 방식을 모색하기 시작했고, 1963년 텔레비전의 내부 회로를 변조하여 예술 작품으로 표현한 개인전 《음악의 전시 — 전자 텔레비전》을 통해 미디어 아티스트의 길에 들어섰다. 백남준은 1964년 미국으로 이주하면서 본격적으로 방송국을 통해서 비디오 작품들을 선보이며, 로봇, 조각, 설치와 비디오를 결합하여 본격적으로 작품 활동을 펼쳐 나갔다. 1969년 비디오를 자유자재로 편집할 수 있는 <백 아메 비디오 신디사이저>를 개발하였으며 여기에 음악과 신체에 관한 끊임없는 탐구까지 더해져 백남준만의 독보적인 예술 세계를 구축하였다. 1984년 <굿모닝 미스터 오웰>을 시작으로 위성 기술을 이용한 텔레비전 생방송으로 전세계가 예술로 소통하는 세계를 보여주었다. 그가 위성으로 보고자 했던 새로운 지평선은 우주였다.

여기, 아방가르드 백남준을 생각하며 고른 작품과 비디오가 있다. 두 눈을 지긋이 감고 손으로 얼굴을 어루만지는 청년 백남준에서 시작하여 첫번째 개인전에서 신중하게 텔레비전을 조작하는 백남준, 길거리에서 <로봇 K-456>을 신중하게 조종하는 백남준, 1984년 파리에서 <굿모닝 미스터 오웰>을 지휘하던 백남준 그리고 마침내 2000년 레이저 작품 앞에서 힘차게 노래하는 백남준에 다르다. 예술과 삶을 통합하며 새로운 추구를 아방가르드는 현대 예술의 청년기이기도 하다. 이 전시는 백남준의 아방가르드를 그저 지나간 미술사의 한 페이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예술을 떠받치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근원적인 힘으로 바라본다. 그렇게 백남준의 치열한 예술의 현장을 지나 우리의 현재로 돌아와, 인공지능과 메타버스 시대에 백남준이라면 어떻게 당당하게 새로운 길을 냈을까 질문하려는 것이다.

What is it, then, that makes Nam June Paik’s art so captivating, even today? We seek the answer in the concept he originated: “the archaeology of the avant-garde.” Paik continuously challenged himself with new technological media, from video and satellite to laser, while also reflecting on the roots of his artistic sensibilities and exploring their foundations. He referred to this process as “the archaeology of the avant-garde.” This dialectical space, at the intersection of ‘avant-garde’ as the forefront of art symbolizing novelty and experimentation, and ‘archaeology’ as the excavation of the past, reveals Paik’s unique artistic disposition.

Paik said that when his piano teacher told him that “Schoenberg is the most avant-garde composer” when he was a young boy, he was immediately drawn to it. He decided the direction of his life as soon as he heard the word ‘avant-garde,’ feeling as if something was resonating from the depth of his soul. As such, Paik realized that his interest in the avant-garde was derived from his genes, that is, it was engraved into his inherent personality. It was why the avantgardism had always been the underlying source that pulled his life to new arts, as he confesses, just as the Ural-Altaic hunters who did not settle in any one place and always went far to look to the new horizon. Here, we understand why Paik was drawn to the far-sighted machine, ‘tele-vision’ and why he always wanted to do new works in search of new media.

He studied aesthetics in the University of Tokyo, with a graduation thesis on Arnold Schönberg. Moving to Germany in 1956 and studying European philosophy and modern music, he came to work actively with contemporary avant-garde artists and began to carve out his artist-identity by doing radical performances which were completely different from artistic canons and conventions back then. Afterwards he pursued a novel path of art making by means of new media. His media art gained momentum by his first solo show *Exposition of Music—Electronic Television* in which he presented televisions with inner circuits modified and manipulated, as a work of art. In 1964 Paik migrated to the U.S. where he developed his video art in full swing. Not only producing video images, he combined them with sculptures and installations, and even created a video synthesizer, a machine to process images. His incessant exploration about music and the body was also a key factor in constructing a distinct territory of his art. From the 1980s Paik realized a series of global projects, such as *Good Morning, Mr. Orwell*, to tear down barriers between avantgarde art and popular culture by satellite TV technology. The new horizon he wanted to see as he traveled far through the satellite wa the univer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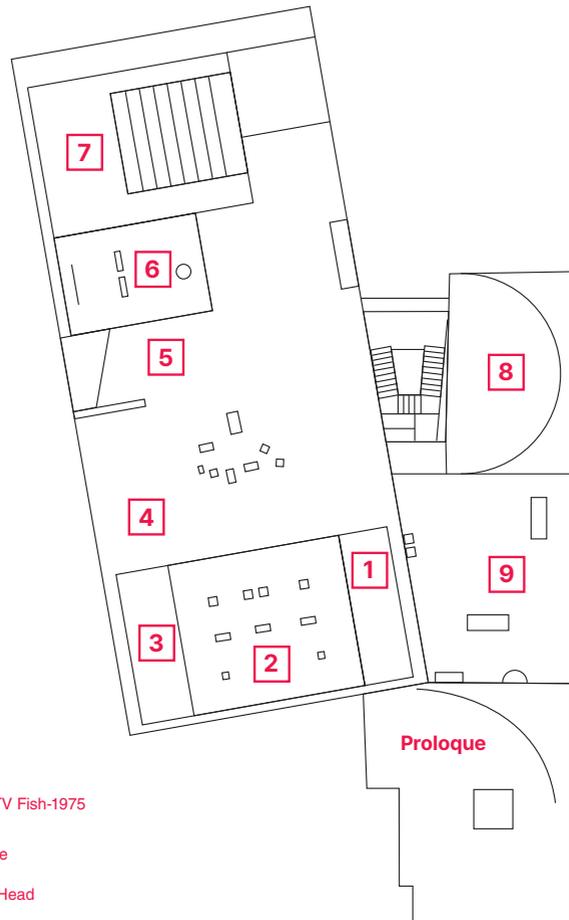
Here are videos and works selected, that reflect Paik’s advant-gardes. Starting with young Paik who is touching his face with both eyes tightly closed in 1961, our memories go back to Paik making final adjustments to televisions for his first solo exhibition, Paik carefully

manipulating *Robot K-456* on the street, Paik directing *Good Morning, Mr. Orwell* from Paris in 1984, and Paik singing his heart out in front of a laser artwork in 2000. Avant-garde, which seeks newness by integrating art with life, is the youth stage of contemporary art. This exhibition seeks to see avantgarde not as a page in the history of art but a foundational force that sustains, revitalizes and propels contemporary art. In the era of Metaverse and A.I., how Paicreated a new path?

전시장 가이드맵 Exhibition Map

※ 주요작품의 위치
Featured Works(Marked on Ma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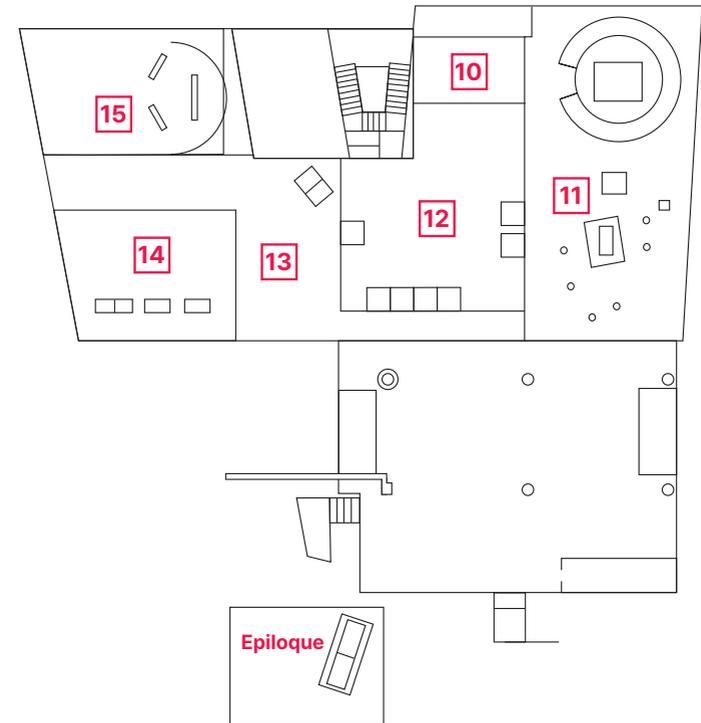
2F



프롤로그 TV물고기-1975 TV Fish-1975

- 1 손과 얼굴 Hand and Face
- 2 머리를 위한 선 Zen for Head
- 3 보이스 박스 Beuys Vox
- 4 자석 TV Magnet TV
- 5 로봇 K-456 Robot K-456
- 6 TV 첼로 TV Cello
- 7 극장 Theater
- 8 달은 가장 오래된 TV Moon is the Oldest TV
- 9 TV 부처 TV Buddha

1F



- 10 촛불 하나 One Candle
- 11 케이지의 숲- 숲의 계시 Forest of Cage-Revelation of the Forest
- 12 조지 마치우나스 George Maciunas
- 13 사이버 포럼 Cyber Forum
- 14 삼원소 Three Elements
- 15 108번뇌 108 Torments

에필로그 코끼리 수레 Elephant Cart

First Nam June Paik

첫 번째 백남준



〈손과 얼굴〉, 1961, 1분 42초, 흑백, 무성.
백남준아트센터 소장.

Hand and Face, 1961, 1min 42sec, black and white, silent. Nam June Paik Art Center Collection.

©백남준 에스테이트 Nam June Paik Estate



〈걸음을 위한 선〉, 《음악의 전시 — 전자 텔레비전》, 갤러리 파르나스, 부퍼탈, 1963, 40.2x30.6cm, 바리타지에 흑백 사진.
백남준아트센터 소장.

Zen for Walking, Exposition of Music-Electronic Television, Galerie Parnass, Wuppertal, 1963, 40.2x30.6cm, black & white photograph on baryta paper. Nam June Paik Art Center Collection.

©백남준 에스테이트 Nam June Paik Estate

나의 축제는 거칠 것이 없어라: 1960년대 초반~1980년대 중반

My Jubilee ist Unverhemmet: 1960s to Mid-1980s

1960년대 초반~1980년대 중반을 거친 백남준의 다양한 작업들을 볼 수 있다. 플럭서스를 시작으로 비디오 아트를 개척한 시기를 넘어 기계와 인간의 공존을 담은 작품들을 통해 백남준의 예술적 진화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공간이다.

The first space showcases a diverse array of Nam June Paik's works spanning from the early 1960s to the mid-1980s. Starting with his involvement in Fluxus and pioneering video art, it also features pieces exploring the coexistence of machines and humans. This space offers a comprehensive view of Paik's artistic evolution.

TV 물고기-1975

TV Fish-1975

살아있는 물고기가 헤엄치는 어항 뒤에 텔레비전이 놓여있다. 비디오에는 춤을 추는 머스 커닝햄, 바닷속을 헤엄치는 물고기 그리고 하늘을 나는 비행기가 등장한다. 어항과 텔레비전 화면의 중첩을 통해 실제로 살아 있는 물고기와 비디오 속 물고기는 하나의 시공간으로 합쳐진다. 또한 커닝햄은 물고기와 함께 춤을 추고, 물고기는 하늘을 헤엄치며, 비행기는 바닷속을 날아다니는 형국이 된다. 어항 속에 살아 있는 물고기와 영상 속 존재들이 긴장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조화를 이룬다. 자연과 기계와 인간 사이의 관계를 새롭게 발명하고자 하였던 백남준의 대표적 작품이다.

There are 5 televisions behind a tank containing live, swimming fish. The screened video features a dancing Merce Cunningham, fish swimming in the ocean, and a flying airplane. The overlap of the tank and televisions bring the live fish and the fish that appears on the screen into the same time-space. It also makes it look like Cunningham is dancing with fish, fish are swimming "through" the sky, and airplanes are flying in the ocean. There is a tension between the live fish and the video's subjects as well as a complex harmony. *TV Fish* embodies Paik's desire to invent a new web of relationships linking nature, machines, and humans.



©백남준 에스테이트 Nam June Paik Estate

〈TV 물고기-1975〉, 1996, 46×250×80cm, 수족관, 20인치 TV 모니터 5대, VCR, 물고기. 국립현대미술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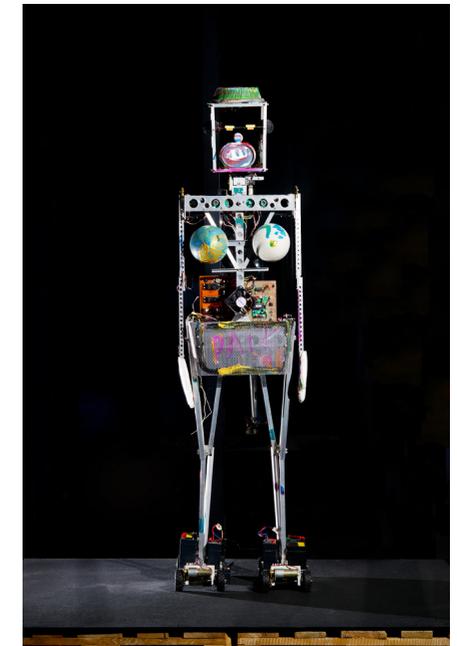
TV Fish-1975, 1996, 46×250×80cm, aquarium, 5 20" TV sets, VCR, fish. MMCA Collection.

로봇 K-456

Robot K-456

〈로봇 K-456〉은 백남준이 1963년 독일에서 연 첫 개인전을 마치고 일본으로 돌아가 여러 엔지니어들과 교류하며 전자공학을 연구하던 시기인 1964년에 제작되었다. 이 작품은 20채널로 원격 조종되는 로봇으로, 백남준은 비교적 덜 알려진 곡인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18번 B플랫 장조〉의 쿠힐 번호 456을 따 작품에 붙였다. 이 로봇은 가느다란 철 구조물에 입에는 라디오 스피커가 있었으며, 머리에는 은박지 접시를 쓰고 가슴에는 빙빙 도는 발포 고무롤, 손에는 프로펠러를 달았다. 구조와 전선이 흰히 들여다보이는 이 로봇은 위태위태하게 걸어 다니며 입으로는 케네디 대통령의 연설을 재생하고 배변을 하듯이 공을 배출하기도 하였다. 〈로봇 K-456〉은 사람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로봇이 아니라 움직이는 데 무려 다섯 명의 기술자들이 필요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로봇이다. 게다가 마치 장난감처럼 무선 조종기의 신호에 따라 우스꽝스럽게 천천히 걸어가는 이 로봇의 모습은 백남준이 지향하는 "기술적인 반(反)기술"을 그대로 보여준다.

Robot K-456 was made in 1964 when Nam June Paik went back to Japan after his first solo exhibition in Germany in 1963. At that time, he studied electronics together with many engineers. *Robot K-456*, a 20-channel remote-controlled robot, was named after Mozart's relatively unknown work: *Piano Concerto No. 18 in B-Flat Major*, Köchel's Number 456. *Robot K-456* was made of a thin steel frame and outfitted with a radio speaker in its mouth, a tinfoil plate on its head, revolving foam rubbers on its breasts, and a propeller on its hands. With its structure and wires exposed to view, the robot walked around precariously. Its mouth played a recording of President John F. Kennedy's address and its bottom excreted beans as if defecating. *Robot K-456* can be said to create human jobs, instead of taking them away, as it requires as many as five engineers to get it moving. Remote-controlled like a toy robot, its funny and fragile walk also truly shows "technological anti-technology" that Paik aspired to.



©백남준 에스테이트 Nam June Paik Estate

〈로봇 K-456〉, 1964(1996), 185×70×55cm, PCB, 서보모터, 센서, 스피커, 앰프, 배터리, 원격 조종기, 팬, 철 구조물. 백남준아트센터 소장.

Robot K-456, 1964(1996), 185×70×55cm, PCB, servomotor, sensor, speaker, amplifier, battery, remote controller, pan, steel structures. Nam June Paik Art Center Collection.

TV 첼로

TV Cello

〈TV 첼로〉는 크기가 다른 세 대의 모니터를 플렉시글라스에 넣어 쌓고 첼로 헤드와 테일피스, 현을 붙여 첼로 모양이 되도록 한 비디오 조각이다. 백남준은 1971년 살럿 무어먼과의 퍼포먼스를 위해 〈TV 첼로〉를 처음 만들었다. 초기 〈TV 첼로〉는 무어먼이 실제로 연주를 할 수 있는 작품이었다. 첼로의 현을 켤 때마다 충돌하는 전자음이 만들어졌는데, 이 소리가 모니터의 이미지에 영향을 주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무어먼은 때때로 현을 손가락으로 튕기거나 아크릴 박스를 두드리는 방식으로 첼로를 연주했다. 〈TV 첼로〉에 사용된 텔레비전 전면에는 현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무어먼이 활로 연주하면 그 진동이 전자 장치를 통해 증폭되었다. 무어먼은 〈TV 첼로〉의 현을 연주할 때 “텔레비전 음색이 나는 소리”가 들린다고 설명하곤 했다. 백남준은 자신의 작품이 기술을 사용한 장난감이 아니라 인간 삶에 있어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를 일으키는 영감의 도구라고 여기며 기술 사용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견지하였다.

TV Cello is a video sculpture of three stacked TV monitors—each encased in plexiglass—with the cello head, tail-piece, and strings attached to form the shape of a cello. Nam June Paik first created *TV Cello* in 1971 for a performance with Charlotte Moorman, and the early version of the work could be played by Moorman. The instrument was designed to make an electronic sound whenever the string was struck, which influenced the image displayed on the monitor. Moorman would sometimes play by plucking the string with her fingers or tapping on the plexi glass box. *TV Cello* has strings on the front of the televisions. When Moorman drew her bow across them, the generated vibration was amplified via an electronic device. Regarding what you heard from this, she often described it as “a certain kind of sound we call TV tone.” Paik held a positive view on the use of technologies that his artworks were not scientific toys but inspirational tools for a new paradigm shift of people’s lives.

〈TV 첼로〉, 1999, 258x70x57cm, 플렉시글라스, 삼성 14인치 TV 6대, 삼성 20인치 TV 1대, 아트스타 10인치 TV 1대, LD 2, LDP 2. 에코랜드 소장.

TV Cello, 1999, 258x70x57cm, plexiglass, 6 Samsung 14” TVs, 1 Samsung 20” TV, 1 Artstar 10” TV, 2 LDs, 2 LDPs. Ecoland JEJU Collection.

백-아베 비디오 신디사이저

Paik-Abe Video Synthesizer

1960년대 후반부터 이미 텔레비전의 내부 회로를 조작해 화면을 왜곡시키고 새로운 시각적 효과를 만들어 냈던 백남준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다양한 주사 방식, 복합 피드백, 신호 혼합 등을 통해 멀티 인풋과 멀티 아웃풋의 방식으로 열린 시스템, 다시 말해 관객의 참여를 끌어낼 수 있는 닫혀 있지 않은 전자 환경을 만들려 하였다. 이러한 백남준의 의도가 성공적으로 집약된 것이 〈백-아베 비디오 신디사이저〉이다. 백남준은 〈백-아베 비디오 신디사이저〉를 “다재다능한 컬러 TV 신디사이저”라고 부르며 그에 대한 기대와 자신감을 감추지 않았다. 백남준은 마치 위대한 화가들이 캔버스에 자신의 예술 세계를 자유롭게 화려하고 심오하게 표현하듯이 이 기계로 텔레비전 수상기를 캔버스 삼아 방송의 콘텐츠들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비디오 신디사이저는 영상들을 합성하고 그 변조를 통해 새로운 영상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기계였다. 아울러 백남준이 초기의 ‘참여 TV’를 통해 꿈꾸던 정치적이고 전복적인 의도부터 관객 참여적인 예술 의도까지 완벽히 실현시켜 줄 수 있는 기계이기도 하였다.

Nam June Paik developed the ways of distorting television images and generating new visual effects by manipulating internal circuits of televisions as early as the late 1960s. He did not stop there, though, and aimed to develop an open system which accommodates multi-input and multi-output through various scanning modes, complex feedback loops, and signal mixing. In other words, he wanted to create an unclosed electronic environment which encourages the participation of viewers. Paik’s such intention successfully resulted in *Paik-Abe Video Synthesizer*. Paik called *Paik-Abe Video Synthesizer* “a versatile color TV synthesizer” and did not conceal his expectation and confidence about it. He declared that this machine would enable us to shape the TV screen with broadcast contents as freely, colorfully and profoundly as many great painters did on canvas. The video synthesizer, which can combine and modulate video images to create new ones, was perfect for Paik in realizing his ideas of political subversiveness and audience participation conceived from his early work *Participation TV*.

〈백-아베 비디오 신디사이저〉, 1969(1972), 168x64x114cm, CRT TV 모니터 2대, 에나멜 코일 2개, 폐쇄회로 카메라 2대, 앰프 1대, 신호 발생기 5대, 컨트롤 보드. 백남준아트센터 소장.

Paik-Abe Video Synthesizer, 1969(1972), 168x64x114cm, 2 CRT TV sets, 2 enamel coils, 2 CCTV cameras, 1 amplifier, 5 audio generators, control board. Nam June Paik Art Center Collection.



©백남준 에스테이트 Nam June Paik Estate

닉슨

Nixon

1965년 백남준은 뉴욕의 뉴스쿨에서 《백남준: 사이버네틱스 예술과 음악》이라는 미국 내 첫 개인전에서 <탈자기(Demagnetizer[Life Ring])>라는 작품을 선보였다. '탈자기'는 기술자들이 고장난 모니터를 고치기 위해 흔히 사용하던 장치로, 화면의 정전기적 부하를 파괴해 오류를 고쳤다. 백남준은 기술자들이 흔하게 사용하던 장치를 예술적으로 전환해 미학적인 의미를 만들었다. <닉슨>은 컬러 텔레비전 두 대, 코일 두 개, 오디오 제너레이터, 매킨토시 앰프, 그리고 타이머 기능이 포함된 스위처 박스로 구성되어 있다. 앰프에 의해서 증폭된 전자 신호는 모니터 앞에 달린 원형의 전자기 코일로 전해지면서 화면에서 재생되고 있는 닉슨 대통령의 이미지를 왜곡시킨다. 텔레비전 내부의 전자 빔이 전자기 코일에서 발생하는 자기력에 영향을 받아 영상이 휘어졌다가 자기력이 끊기면 다시 원래의 닉슨의 모습으로 돌아온다. 백남준은 이를 통해 텔레비전이 가진 참여적인 힘을 드러내는 동시에 정치적으로도 작용할 수 있는 예술의 힘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

Nam June Paik presented *Demagnetizer(Life Ring)* in *Nam June Paik: Cybernetic Arts and Music*, his first US solo exhibition, at the New School, New York in 1965. The "demagnetizer" can remove electrostatic overload on the monitor and consequently resolve errors, so it is useful for engineers to fix broken televisions. Paik converted this ordinary device of engineers into an artistic piece giving it aesthetic meanings. *Nixon* is composed of two color televisions, two electromagnetic coils, an audio generator, a McIntosh amplifier, and a switcher box with a controlled timer. Amplified electronic signals are sent to circular electromagnetic coils placed in front of the monitor, and distort Nixon's image being played on the screen. The video is crooked when electron beams within the television are affected by the magnetic force of electromagnetic coils, and it returns to its intact image when the magnetic force is off. Paik demonstrated the participatory power of television, and at the same time suggested the power of art that could affect politics.



©백남준 에스테이트 Nam June Paik Estate

<닉슨>, 1965(2002), 가변크기, CRT TV 모니터 2대, 에나멜 코일 2개, 신호 발생기 1대, 매킨토시 앰프 1대, 콘덴서 2대, 비디오 분배기 1대, 스위처 박스 1개, 1채널 비디오, 컬러, 무성, VHS 테이프. 백남준아트센터 소장.

Nixon, 1965(2002), variable dimensions, 2 CRT TV sets, 2 enamel coils, 1 audio generator, 1 McIntosh amplifier, 2 condensers, 1 video distributor, 1 switcher box, 1-channel video, color, silent, VHS tape. Nam June Paik Art Center Collection.

자석 TV

Magnet TV

백남준은 1965년 미국에서 열린 첫 개인전 《백남준: 사이버네틱스 예술과 음악》에서 17인치 흑백 텔레비전과 산업용으로 쓰이는 자석을 세트로 같이 설치해 만든 <자석 TV>를 처음으로 전시하였다. 1963년 독일 부퍼탈에서 열린 백남준의 첫 개인전에서 텔레비전 내부 회로를 변경해 화면을 왜곡시키는 방식을 시도했다면, <자석 TV>는 TV의 외부에서 자석을 이용해 전자 빔의 흐름을 변경하여 화면을 왜곡시키는 일종의 '장치된 TV'로 볼 수 있다. 컬러TV에 자석을 설치한 경우에는 자석이 화면의 앞쪽에 위치하게 되고, 진공관 안쪽에 도포된 형광물질이 굴절된 전자 빔의 영향으로 모니터에 화려한 색으로 무늬를 만들어낸다. 자석의 가까운 쪽에는 점에 가까운 삼색의 패턴이 생기고, 자석으로부터 멀어지면서 원형에 가까운 삼색의 패치 워크가 생긴다. <자석 TV>는 1960년대 초기 오실로스코프의 조작을 통해 추상적인 전자 영상을 만들어 내는 방식이나 현재 컴퓨터 그래픽을 통해 화려한 전자 영상을 만드는 방식보다 훨씬 더 직접적이고 단순한 방식이다. <자석 TV>는 기술적인 구성과 미학적인 분석보다 단순한 기계조작을 통해 누구나 직관적으로 작품의 원리를 파악하며 시각적으로 즐길 수 있다.

Magnet TV is a 17-inch black-and-white television combined with an industrial magnet. Nam June Paik first presented this piece at *Nam June Paik: Cybernetic Arts and Music*, his first solo exhibition in the US in 1965. Paik manipulated internal circuits of televisions to distort screen images for the experimental television series demonstrated in his first solo exhibition held in Wuppertal in 1963. For *Magnet TV*, in contrast, he placed a magnet outside of a television to change the flow of electron beams and thus modify the images on. Hence, *Magnet TV* can be regarded as a kind of "prepared television." In case of a color television, a magnet is placed in the front part of the monitor, so fluorescent materials inside a cathode-ray tube are influenced by the curved electron beams and create colorful patterns on the screen. Near the magnet is created a three-colored pattern which almost looks like a dot; in the farther area from the magnet form tricolor patchworks similar to circles. A strong magnet is placed on a 10-inch antique color television, creating beautiful tricolor images that gets densely interlaced when closer to the magnet. *Magnet TV* does not necessarily require technical and aesthetic analyses. Rather, you may intuitively understand it by operating the television in the easy way for anyone to relish the following visual joy.



©백남준 에스테이트 Nam June Paik Estate

<자석 TV>, 1965(1969), 가변크기, CRT TV 모니터 1대, 자석 1개. 백남준아트센터 소장.

Magnet TV, 1965(1969), variable dimensions, 1 CRT TV set, 1 magnet. Nam June Paik Art Center Collection.

Second Nam June Paik

두 번째 백남준



〈존 케이지에 바침〉, 1973, 29분 14초, 컬러, 유성. 백남준아트센터 소장.

A *Tribute to John Cage*, 1973, 29min 14sec, color, sound. Nam June Paik Art Center Collection.

©백남준 에스테이트 Nam June Paik Estate

필름 속의 백남준

Nam June Paik in Film

극장에서는 이번 전시 기획의 시발점이 되었던 1973년 작 <글로벌 그루브>와 아만다킴 감독의 백남준 관련 다큐멘터리 <백남준: 달은 가장 오래된 TV> 외 10개의 작품 상영된다.

In the theater, 10 works will be screened, including 1973's *Global Groove*, which was the starting point of this exhibition planning, and Amanda Kim's documentary on Nam June Paik, *Nam-June Paik: The Moon Is the Oldest TV*

상영 시간표 Screening Schedule

상영작은 전시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The screening schedule may change depending on exhibition circumstances.

요일 Date	시간 Time	작가 Artist	제목 Title	러닝타임 Running time
화 Tue	10:00-12:00	백남준, 찰스 아틀라스, 머스 커닝햄, 구보타 시게코 Nam June Paik, Charles Atlas, Merce Cunningham, Shigeko Kubota	머스 바이 머스 바이 백 <i>Merce by Merce by Paik</i>	28min 32sec
	15:00-17:00	백남준 Nam June Paik	백남준: 텔레비전을 위한 편집 <i>Nam June Paik: Edited for Television</i>	29min 32sec
수 Wed	10:00-12:00	백남준 Nam June Paik	호랑이는 살아있다 <i>Tiger Lives</i>	45min 27sec
	15:00-17:00	백남준, 벤티 코너스, 폴 게린 Nam June Paik, Betsy Connors, Paul Garrin	리빙 씨어터와의 삶 <i>Living with the Living Theatre</i>	29min 48sec
목 Thu	10:00-12:00	백남준, 그레이그리 배트콕 Nam June Paik, Gregory Battcock	중국에서는 우표에 침을 바르지 않는다 <i>You Can't Lick Stamps in China</i>	28min 16sec
	15:00-17:00	백남준, 더글러스 데이비스, 요셉 보이스 Nam June Paik, Douglas Davis, Joseph Beuys	앨런과 앨런의 불평 <i>Allan n Allen's Complaint</i>	28min 46sec
금 Fri	10:00-12:00	백남준 Nam June Paik	모음극 212 <i>Suite 212</i>	30min 18sec
	15:00-17:00	백남준 Nam June Paik	도큐멘타 6: 위성 텔레캐스트 <i>Documenta 6: Satellite Telecast</i>	29min 11sec
토 Sat	10:00-12:00	백남준 Nam June Paik	글로벌 그루브 <i>Global Groove</i>	28min 29sec
	15:00-17:00	아만다 킴 Amanda Kim	백남준: 달은 가장 오래된 TV <i>Nam June Paik: The Moon is the Oldest TV</i>	110 min
일 Sun	10:00-12:00	백남준 Nam June Paik	글로벌 그루브 <i>Global Groove</i>	28min 29sec
	15:00-17:00	아만다 킴 Amanda Kim	백남준: 달은 가장 오래된 TV <i>Nam June Paik: The Moon is the Oldest TV</i>	110 min

Third Nam June Paik

세 번째 백남준



©백남준 에스테이트 Nam June Paik Estate

〈밥 호프〉, 2002, 141×116×33cm, CRT TV 모니터 2대, LCD TV 모니터 3대, 진공관 TV 케이스 3대, 진공관 라디오 케이스 3대, 비디오 분배기 1대, 1-채널 비디오, 컬러, 무성, DVD. 백남준아트센터 소장.

Bob Hope, 2002, 141×116×33cm, 2 CRT TV sets, 3 LCD TV sets, 3 vacuum-tube TV cases, 3 vacuum-tube radio cases, 1 video distributor, 1-channel video, color, silent, DVD. Nam June Paik Art Center Collection.

백남준의 세계: 1980년대 후반~2006년

The World of Nam June Paik: Late 1980s to 2006

1980년대 후반의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 기계와 인간의 관계를 가족에 비유한 로봇시리즈와 자연과 기술의 융합을 상징하는 작업들을 통해 과거를 존중하면서도 창조적 도전을 통해 낙관적인 미래 꿈꿨던 백남준의 세계를 볼 수 있다.

This section features works from the late 1980s, including the Robot Series, which likens the relationship between machines and humans to that of a family, and pieces symbolizing the fusion of nature and technology. It offers a glimpse into Nam June Paik's world, where he honored the past while envisioning an optimistic future through creative challenges.

촛불 하나

One Candle

〈촛불 하나〉는 촛불 하나 밝히고 그것을 카메라로 찍은 뒤 여러 대의 삼관식 프로젝터를 이용하여 이미지를 벽에 투사하는 작품이다. 카메라는 주변의 공기를 따라 움직이는 촛불의 불꽃을 촬영하여 영상 신호를 실시간으로 프로젝터로 보내고, 프로젝터는 비물질적이고 전자적인 이미지를 벽에 투사한다. 백남준은 ‘촛불 하나’라는 제목을 통해, 이 모든 환경이 과거의 기술과 자연을 상징하는 하나의 촛불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한편 이제는 이 빛을 새로운 방식으로 표현해내는 기술 미디어의 능력과 비디오의 아름다움을 보여준다.

One Candle is a work in which a candle is lit and recorded, and then the images are projected on the wall by several CRT projectors. The camera takes the flame of a candle moving along the surrounding air and sends the image signals to projectors in real-time, and the projectors throw immaterial and electronic images on the wall. Paik, through the title of *One Candle*, emphasizes that all these environments started with a single candle that symbolizes past technologies and nature, and now shows the aesthetic of videos and the power of technological media which express the light in a new way.

〈촛불 하나〉, 1989, 가변크기, 트라이포드 위 촛불, 줌 렌즈가 달린 카메라, 신호변환기, 모니터, 트랜스포머, CRT 프로젝터 5대, 프랑크푸르트현대미술관 소장.

One Candle, 1989, variable dimensions, candle on tripped, panasonic camera with zoom lens and tripod, signal converter, transformer, control monitor, 5 CRT projectors. Museum für Moderne Kunst's collection.

하이웨이 해커

Highway Hacker

〈하이웨이 해커〉는 노란색 신호등 오브제와 거꾸로 부착한 앤티크 라디오가 각각 눈과 입을 구성하고, 그 속에 텔레비전 모니터를 삽입한 얼굴 형상의 TV 로봇이다. 해커의 주요 도구인 컴퓨터, 회로 보드를 정수리에 달아 그 정체성을 부여하고, 입 주위에 달린 나팔은 고속도로의 경적 소리를 시각화한다. 눈과 입에서 재생되는 영상은 도로, 선박, 차량 등 교통수단과 컴퓨터로 만들어진 가상 고속도로 이미지의 중첩으로, 백남준이 1970년대에 주목했던 사회 전환기의 모습, 즉 하드웨어 중심의 산업사회에서 소프트웨어 기반 정보사회로의 이행을 은유한다. 〈하이웨이 해커〉는 미래 사회의 인간상을 담아낸 TV 조각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어쩌면 백남준의 자소상일지도 모른다.

Highway Hacker is a TV-robot with a face where the eyes and mouth consist of yellow traffic signal objects and an upside-down antique radio case; into these, television monitors have been placed. A sense of identity is added with the placement of a computer and circuit board on the crown of the head, while a horn placed around the mouth visualizes the horn sounds encountered on the highway. The videos that play in the eyes and mouth juxtapose different means of transportation(roads, ships, vehicles, and so forth) with virtual expressway images created by computer, metaphorically alluding to the aspects of social transformation that Nam June Paik focused on during the 1970s—namely, the transition from a hardware-centered industrial society to a software-based information society. While this TV sculpture is seen as capturing the image of human beings in a future society, *Highway Hacker* may also be Paik's own self-portrait.

〈하이웨이 해커〉, 1994, 90×83×60cm, TV수상기박스, TV 3대, LD, LDP, 각종 오브제. 국립현대미술관 소장.

Highway Hacker, 1994, 90×83×60cm, television set, 3 TV monitors, LD, LDP, various elements. MMCA Collection.

로봇 가족: 할아버지

Family Robot: Grandfather

백남준은 최초의 로봇 작품 〈로봇 K-456〉 이후 다양한 로봇 작품을 선보였다. 〈로봇 가족〉 시리즈는 할아버지와 할머니, 아버지와 어머니, 손자와 손녀까지 3대에 걸친 가족을 표현한 것이다. 각 로봇마다 연식이 다른 텔레비전을 사용하여 인물의 개성을 재미있게 연출하면서 동시에 전자 산업의 발달과 함께 나타난 시대적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After his first robot, *Robot K-456*, Paik created a wide range of other robots. *The Family Robot* series is of a three-generation family: grandfather and grandmother, father and mother, and grandson and granddaughter. The robots are constructed from televisions from different eras, reflecting both the individuality and age of each character as well as the evolving times shaped by advancements in the electronics industry.

〈로봇 가족: 할아버지〉, 1986, 250×138×60cm, 빈티지 TV & 라디오 케이스, KEC 9인치 TV 3대, Bunting 5인치 TV 4대, KTV 4.5인치 TV 2대, LD, LDP. 에코랜드 소장.

Family Robot: Grandfather, 1986, 250×138×60cm, vintage TV & radio cabinet, 3 KEC 9" TVs, 4 Bunting 5" TVs, 2 KTV 4.5" TVs, 1LD, 1LDP. Ecoland JEU Collection.

조지 마치우나스

George Maciunas

플럭서스의 창시자이자 백남준의 절친한 동료인 조지 마치우나스를 형상화한 작품으로, 바이올린을 들어 올렸다가 내려치며 부수는 백남준의 퍼포먼스를 공연하는 마치우나스의 모습을 표현했다. 윤희철을 믿었던 마치우나스가 자신은 개구리로 환생할 것이라 말한 것을 회상하며 작품에 개구리 조각을 더하였다.

This depicts George Maciunas, the founder of Fluxus and a close collaborator and friend of Nam June Paik. It shows Maciunas replicating Paik's performance of raising a violin into the air and smashing it to the ground. The frog addition is based on Maciunas' belief in samsara, the Buddhist cycle of birth, death, and rebirth, and that he will be born in the next life as a frog.

〈조지 마치우나스〉, 1981, 234x101x65cm, 빈티지 TV & 라디오 케이스, 넥타이, 장난감 개구리, 바이올린, 안경, 전화기, 망치, 7인치 소니 TV 6대, 13인치 소니 TV 1대, 20인치 소니 TV 1대, 2LD, 2LDP. 에코랜드 소장.

George Maciunas, 1981, 234x101x65cm, vintage TV & radio cabinet, necktie, toy frog, violin, eye glasses, telephone, hammer, 6 Sony 7" TVs, 1 Sony 13" TV, 1 Sony 20" TV, 2LDs, 2LDPs. Ecoland JEU Collection.

굿모닝 미스터 오웰

Good Morning Mr. Orwell

〈굿모닝 미스터 오웰〉은 뉴욕과 파리를 1984년 1월 1일에 위성으로 연결하여 각각에서 일어나는 퍼포먼스를 생방송으로 송출했다. 백남준의 기획에서 핵심은 대중문화의 스타들과 아방가르드 아티스트들이 각자의 목소리로 소통하는 만남을 만드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 의미 있는 만남을 전 세계인들이 함께 지켜보도록 '선물'하는 것이었다. 보통의 이원 생방송은 한쪽에 키투를 타워를 두어서 다른 한쪽의 영상을 받은 뒤 실시간 편집하여 동일한 내용을 양쪽으로 방송하는 것이지만 〈굿모닝 미스터 오웰〉은 파리와 뉴욕이 각자의 방송 소스를 주고받은 뒤 각각 자유롭게 방송 내용을 송출했다. 백남준이 생방송이란 전화처럼 서로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텔레비전의 소통을 이뤄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백남준이 텔레비전에서 당연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했던 방식의 소통, 즉 쌍방향 텔레비전이 실현되었다. 백남준의 위성방송은 마치 견우와 직녀가 만나듯이 뉴욕과 파리의 작가들이, 서로 대화를 주고 받으며 완성된다.

Good Morning Mr. Orwell was a live satellite broadcast of performances in New York and Paris that was played on January 1st, 1984. Paik's objective was to create an arena for pop culture stars and avant-garde artists to convene and present this multinational encounter as a "gift" to viewers around the world. Generally, simultaneous broadcasting is done by one party with a control tower who receives the video sent by the other party, edits it in real-time, and then screens the same content at both ends. For *Good Morning Mr. Orwell*, however, artists in Paris and New York exchanged source material and then each broadcast their content however they saw fit. This unconventional method reflects Paik's belief that a TV broadcast should be grounded in interactive communication, similar to a telephone conversation. This interactive satellite TV artwork was a revolutionary meeting of artists in New York and Paris in the "same" time-space decades before the FaceTime video call app.

〈굿모닝 미스터 오웰 파리 라이브〉, 1984, 59분 54초, 컬러, 유성, 백남준아트센터 소장.

Good Morning Mr. Orwell Paris Live, 1984, 59min 54sec, color, sound. Nam June Paik Art Center Collection.

걸리버

Gulliver

〈걸리버〉는 백남준이 2001년에 제작한 3채널 비디오 설치 작업이다. 바닥에 누워 있는 거인 걸리버는 총 길이가 4미터가 넘는 거대한 로봇이다. 총 11개의 오래된 텔레비전 케이스와 라디오 케이스 등이 걸리버의 몸을 이루고 있고, 모두 11개의 CRT 텔레비전에서 두 종류의 비디오를 보여준다. 하나는 사이보그가 첨단 미디어 환경 위로 성큼 걸어가고 있는 장면과 컴퓨터 그래픽으로 구현한 자율주행이나 전자 도로를 질주하는 비디오이며, 또 하나의 비디오는 〈로봇 K-456〉과 전 세계 곳곳의 풍경과 컴퓨터 그래픽을 번갈아 보여준다. 걸리버와 함께 제작한 로봇 릴리푸티언은 다양한 모습을 하고 있다. 각종 기계 부품, 나사, 전선, 파이프 등이 릴리푸티언의 몸체를 다채롭게 구성하고 있으며 머리는 5인치 LCD 텔레비전으로 만들어졌다. 이 작품에서 백남준은 생기발랄한 릴리푸티언 로봇과 상대적으로 무기력하게 누워 있는 거대한 걸리버의 대비를 연출할 뿐 아니라, 릴리푸티언 로봇들이 사다리를 타고 오르내리며 걸리버의 온몸을 전선으로 포박하고 있는 연극적 상황을 재미나게 보여준다.

Gulliver is a three-channel video installation produced by Nam June Paik in 2001. Lying on the ground, the giant *Gulliver* is a massive robot stretching for over four meters in length. His body consists of a total of 11 old TV and radio cases and similar items, while two videos are shown on 11 cathode-ray televisions. One shows a cyborg striding over a high-tech media environment, along with images of self-driving and electronic highway travel rendered in computer graphics. The other alternately shows *Robot K-456*, landscapes from around the world, and computer graphics. The tiny robots, Lilliputian, that Paik has created with his *Gulliver* take on different forms. Their bodies are variously composed of machinery parts, screws, wires, and pipes, while their heads are made from five-inch LCD televisions LCD televisions. Paik shows not only the contrast between the lively tiny robots and the relatively languid, supine giant *Gulliver*, but also an amusing glimpse at the theatrical situation that unfolds as the robots climb up and down ladders tying *Gulliver* down with wires.

〈걸리버〉, 2001, 59x432x371cm, CRT TV 모니터 11대, 진공관 TV 케이스 11대, 진공관 라디오 케이스 1대, 릴리푸티언 로봇 18개(LCD 모니터 18개), 나무 사다리 3개, 비디오 분배기 4대, 4-채널 비디오, 컬러, 무성, DVD. 백남준아트센터 소장.

Gulliver, 2001, 59x432x371cm, 11 CRT TV sets, 11 vacuum-tube TV cases, 1 vacuum-tube radio case, 18 Lilliputian robots(LCD monitors), 3 wooden ladders, 4 video distributors, 4-channel video, color, silent, DVD. Nam June Paik Art Center Colle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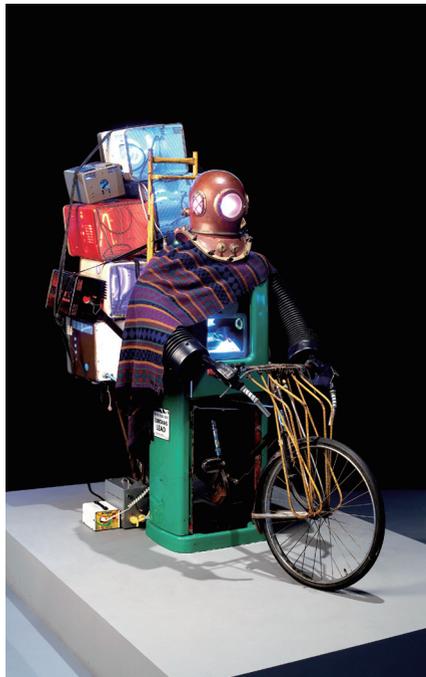
©백남준 에스테이트 Nam June Paik Estate

칭기즈 칸의 복권

Rehabilitation of Genghis Khan

〈칭기즈 칸의 복권〉은 1993년 베니스 비엔날레 독일관에 전시되었던 작품으로, 자전거를 탄 로봇이 10대의 텔레비전들을 자전거 짐받이에 가득 싣고 있는 조각이다. 20세기의 칭기즈 칸은 말 대신 삼천리 자전거를 타고 있으며, 투구 대신 잠수 헬멧을 착용하고 알록달록한 줄무늬 망토를 어깨에 걸치고 있다. 로봇의 몸체는 초록색 철제 주유기로 이루어져 있으며 팔은 검은 플라스틱 주름관으로, 손은 검은색 주유 노즐로 구성되어 있다. 로봇의 머리에 씌워진 잠수 헬멧 안에는 사람의 눈 모양을 한 분홍색과 파란색의 네온이 설치되어 있다. 이집트 상형문자에서 눈은 창조주를 의미한다. 눈을 뜬다는 것은 명석하고 창조적인 시선을 가지고 행위의 영역 안으로 들어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백남준의 20세기 칭기즈 칸은 동서양을 아우르며 새로운 기술 매체로 두 세계의 가교 역할을 하는 창조적인 인물이 복권되었음을 시사한다.

Rehabilitation of Genghis Khan is a sculpture that was exhibited in the German Pavilion, Venice Biennale in 1993. A robot is on a bicycle whose rear carrier is full of ten antique television monitors. Genghis Kahn in the 20th century is riding a Samchully bicycle instead of a horse, wearing a diving helmet instead of a combat helmet, and puts on a colorful striped cape over its shoulder. The robot's body is made of a green steel fuel dispenser, its arms, black plastic corrugate tubes, and its hands, black fueling nozzles. Inside the diving helmet on the robot's head are pink and blue neon lights in the form of human eyes. In Egyptian hieroglyphics, eyes mean the Creator. To open eyes symbolizes entering the realm of actions with a clever and creative perspective. Nam June Paik's 20th-century Genghis Kahn implies that the creative figure has been rehabilitated to encompass the East and the West and to play the role as a bridge between the two worlds with new technological media.



©백남준 에스테이트 Nam June Paik Estate

〈칭기즈 칸의 복권〉, 1993, 217×110×211cm, CRT TV 모니터 1대, 철제 TV 케이스 10대, 네온관, 자전거, 잠수 헬멧, 주유기, 플라스틱관, 망토, 밧줄, 1-채널 비디오, 컬러, 무성, LD, 백남준아트센터 소장.

Rehabilitation of Genghis Khan, 1993, 217×110×211cm, 1 CRT TV set, 10 steel TV cases, neon tube, bicycle, diving helmet, fuel dispenser, plastic pipes, cape, ropes, 1-channel video, color, silent, LD, Nam June Paik Art Center Collection.

케이지의 숲-숲의 계시

Forest of Cage-Revelation of the Forest

1993년 백남준은 수직으로 곧게 뻗은 나무에 크고 작은 모니터가 여럿 달려 있는 대규모 설치 작품 〈케이지의 숲-숲의 계시〉을 발표했다. 자연의 생명력을 상징하듯 높달란 나무들 사이에 설치된 TV에서는 류이치 사카모토의 연주에 맞춰 오키나와 민요를 부르는 백남준과 샬럿 무어먼의 모습과 백남준의 예술적 스승인 미국의 현대 음악가 존 케이지의 퍼포먼스 등 다양한 영상들이 선보인다. 1976년 케이지는 「새를 위하여: 샤를 다니엘과의 인터뷰」라는 책을 발표하여 그가 생각하는 음악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펼쳐놓은 바 있다. 1990년대에 백남준은 케이지의 이름이 영어로 '새장'을 뜻하는 것을 이용해 케이지의 영상을 새장 속에 집어넣은 작품 〈새장 속의 케이지〉를 여럿 제작했다. 그러나 일본에서 제작한 〈케이지의 숲〉에서는 케이지를 일본어로 음차하면 '계시'와 같아지는 것에 착안하여 〈케이지의 숲〉을 〈숲의 계시〉라고 부르고 있다. 이 제목을 통해서 백남준은 케이지를 새장에서 풀어주어 신비한 작은 새들이 사는 저 먼 오키나와 북단의 안바루산 깊은 숲에 자유롭게 놓아준다. 백남준이 왜 안바루 지역에 대해 언급했는지 정확히 남아 있지 않지만 안바루 지역은 땅끝을 의미하는 오키나와 최북단의 무성한 밀림 숲이며 이곳에는 날지 못하는 희귀 조류인 안바루쿠이나(흰눈썹뽕부기)가 사는 것으로 유명하다.

Paik released *Forest of Cage-Revelation of the Forest* in 1993. It is a large-scale installation of tall trees, whose height represents the power of nature's energy, with TV monitors of varying sizes planted throughout. The televisions feature videos of Ryuichi Sakamoto accompanying himself singing Okinawan folk songs and performances by Paik, Charlotte Moorman, and John Cage, an American Avant-Garde composer who profoundly influenced Paik's art. *For the Birds: In Conversation with Daniel Charles*, a collection of interviews published in 1976, conveys Cage's idea of what music should be. In the 1990s, Paik produced his *Cage in Cage series*, a tongue-in-cheek reference to Cage's name also being a common noun for a bird enclosure. In Japan, where this artwork was created, it is referred to as *Revelation of the Forest* due to the Japanese transliteration of "cage," which is a word that means "revelation" in Japanese. Through the title, Paik releases Cage from his bird cage in the forests of Yanbaru, where many mysterious, small birds live. It is unclear why Paik chose the Yanbaru region, which is the northern part of Okinawa's main island, whose name means "densely-forested mountain." It is famous as being home to the Yanbaru Kuina, a flightless bird that is also a protected species.

〈케이지의 숲-숲의 계시〉, 1992-1994, 가변크기, 식물, 나무, TV 모니터 23대, 사운드, 울산시립미술관 소장.

Forest of Cage-Revelation of the Forest, 1992-1994, variable dimensions, plants, trees, 23 TV monitors, sound.

Ulsan Art Museum Collection.

사이버 포럼

Cyber Forum

1994년부터 1997년까지 순회전의 형식으로 미국 전역에서 개최되었던 《전자초고속도로》는 전자 매체로 표상되는 인터넷이 앞으로 물리적 세계를 바꾸어 놓을 것이라는 개념을 보여주는 중요한 전시였다. <사이버 포럼>은 이 전시를 대표하는 작품이자 미래를 예견하는 백남준의 대표적인 비디오아트 작품으로 평가된다. 당시 전시에서 선보였던 <사이버 포럼>은 시민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무슨 주제에 대해서든 표현할 수 있는 '전자초고속도로'의 시청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작품에서 백남준은 '전자초고속도로'를 프로파간다를 위한 궁극적인 도구로, 텔레비전은 프로파간다를 노출할 수 있는 권력을 지니는 것으로 보았다.

Electronic Superhighway, held across the United States as touring exhibitions from 1994 to 1997, was also an important exhibition that showed the concept of how the internet, represented by electronic media, would change the physical world in the future. *Cyber Forum*, which was included in *Electronic Superhighway*, is evaluated as a representative work of video art by Nam June Paik, who foresees the future. *Cyber Forum* depicts a robot standing in a small courtroom with satellite antennae as a roof, demonstrating the futuristic idea that even robots that are not humans can speak freely. *Cyber Forum* is the town hall of the super highway, where citizens have opportunity to express their views on any subject. In this work, Paik saw the 'electronic superhighway' as the ultimate tool for propaganda. At the same time, television has the power to expose the propaganda.

<사이버 포럼>, 1994, 가변크기, KEC 9" TV 47대, 파나소닉 10" TV, 목재 프레임, 위성 접시 로봇 2개, 1 빈티지 TV 캐비닛, 알루미늄 프레임, 책, GE 형광투시경의 네온, 2채널 비디오, 컬러, 무성, 에코랜드 소장.

Cyber forum, 1994, variable dimensions, 47 KEC 9" TVs, 1 Panasonic 10" TV, wood framework, 2 satellite dish robots, 1 vintage TV cabinet, aluminum frame, books, neon in GE fluoroscope, 2-channel video, color, sound. Ecoland JEJU Collection.

삼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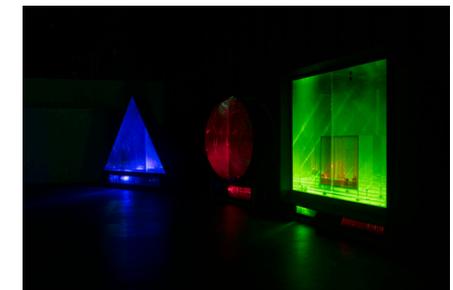
Three Elements

<삼원소>는 1997년부터 3년 여에 걸쳐 만들어진 백남준의 세 가지 레이저 작품 <원>, <사각형>, <삼각형>을 합쳐서 일컫는다. 백남준은 레이저를 이용해 '천지인'의 사상을 형상화하고자 한다고 종종 밝힌 것으로 보아 이 세 가지 기하학적 도형은 한국 전통문화에서의 '원방각(圓方角)'임을 짐작할 수 있다. <삼원소>는 각각 원형, 사각형, 삼각형 모양의 목재 틀에 거울들이 달린 상자 형태를 하고 있으며, 앞면은 한쪽이 유리창인 거울이어서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다. 작은 구멍을 통해 색깔 있는 레이저 광선을 비추고, 이 빛은 전압으로 속도가 조절되는 DC모터에 의해 회전하는 프리즘에 투사된다. 프리즘에 의해 굴절·분산된 레이저는 거울에 의해 반사되고 끊임없이 역동적으로 움직이게 되면서 한정된 공간을 무한한 깊이의 공간으로 변화시킨다.

Three Elements refers to Nam June Paik's three laser works, *Circle*, *Square*, and *Triangle*, created over three years since 1997. As Paik had often stated his wish to visualize the idea of "cheon-ji-in (Heaven, Earth, and Man)" with lasers, one may assume that the three geometric forms symbolize won-bang-gak (circle, square, and triangle) that represents cheon-ji-in in traditional Korean culture. *Three Elements* displays the respective forms of a circular, square, and triangular wooden frame with mirrors attached. The interior is visible as the front plane is a glass mirror. A colored laser beam is shot through a small hole into a prism rotated by a speed-controlled DC motor. Lasers refracted and distributed by the prism are reflected by the mirror, continuously and dynamically moving, and transferring the limited space into one of infinite depth.

<원>, 1999, 287×234×122cm, 레이저 1개, 나무 틀, 거울, 반투명 플렉시글라스, 광학계, 프리즘 2개, 모터 2개, 연무기. <사각형>, 1999, 309×246×122cm, 레이저 2개, 나무 틀, 거울, 반투명 플렉시글라스, 광학계, 프리즘 3개, 모터 3개, 연무기. <삼각형>, 1999, 325×375×122cm, 레이저 1개, 나무 틀, 거울, 반투명 플렉시글라스, 광학계, 프리즘 2개, 모터 2개, 연무기. 백남준아트센터 소장.

Circle, 1999, 287×234×122cm 1 laser, wooden frame, mirror, one-way mirror plexiglass, optical system, 2 prisms, 2 motors, power supply, fog machine. *Square*, 1999, 309×246×122cm, 2 lasers, wooden frame, mirror, one-way mirror plexiglass, optical system, 3 prisms, 3 motors, power supply, fog machine. *Triangle*, 1999, 325×375×122cm, 1 laser, wooden frame, one-way mirror plexiglass, optical system, 2 prisms, 2 motors, power supply, fog machine. Nam June Paik Art Center Collection.



©백남준 에스테이트 Nam June Paik Estate

108번뇌

108 Torments

1998년 경주세계문화엑스포에서 처음 소개된 작품 <108번뇌>는 108개의 모니터를 통해 한국의 역사적인 사건과 근대사의 중요한 인물들, 동시대의 문화적 장면 등을 함축적으로 담고 있다. 백남준와 함께 플럭서스로 활동한 동료들의 모습과 8·15 광복과 한국전쟁의 잔상, 전통 부채춤과 승무, 당시 대중문화를 대표했던 서태지와 아이들의 모습이 등장한다.

First introduced at the Gyeongju World Culture Expo in 1998, *108 Torments* features 108 monitors that symbolically encapsulate historical events in Korea, significant figures in modern history, and cultural scenes of the contemporary era. The monitors feature footage of Nam June Paik's fellow artists from the Fluxus era as well as images of Liberation Day on August 15, the remnants of the Korean War, traditional fan dances and seungmu, and the iconic presence of Seo Taiji and Boys, who represented popular culture at the time.

<108번뇌>, 1998, 가변크기, 50분, 20인치와 29인치 CRT 모니터 108대, 컬러, 유성.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소장.

108 Torments, 1998, variable dimensions, 50min, 108 20" & 29" CRT TV sets, color, sound. Gyeongsangbuk-Do Culture & Tourism Organization Collection.

코끼리 수레

Elephant Cart

<코끼리 수레>는 나무로 제작된 거대한 앤티크 코끼리 조각상과 의자 위에 우산을 쓰고 있는 불상, 후면부의 붉은색 수레 위에 놓인 앤티크 텔레비전과 라디오, 나팔 모양 확성기 등으로 구성된 작품이다. 코끼리의 다리는 각각 네 개의 바퀴 달린 카트 위에 놓여 있으며, 플라스틱 의자 위에 앉은 부처는 흰색과 노란색이 배색된 아디다스 우산을 쓰고 있다. 코끼리와 수레는 붉은색 전선으로 서로 이어져 있으며, 후면부의 앤티크 텔레비전 안에서는 태국 수린의 코끼리 축제 영상이 재생된다. 텔레비전과 라디오를 가득 실은 수레는 케이블 전선으로 이어진 코끼리의 이동방향에 따라 정보가 확산되는 것처럼 보인다. 과거의 오브제들과 새로운 매체가 혼합된 이 작품은 모든 것이 빠르게 변화하는 속도의 시대에 과거를 되돌아보고 현재의 통신이 전파되는 방식을 재고하게 한다.

Elephant Cart is composed of a wooden elephant, a Buddha sculpture, and a red cart filled with stacks of TV sets, radios, gramophone speakers, and more. Each of the elephant's four legs is placed on a four-wheeled dolly, and the Buddha sitting in a plastic chair is holding an Adidas white-and-yellow umbrella. The elephant is tethered with red electric cords to the cart, and the antique television monitor at the rear end shows a video of the Surin Elephant Round-up. The cart filled with TV sets and radios appears to show diffusing information that is headed in the direction of the elephant's movement. Combined with objects of the past and new media, *Elephant Cart* allows one not only to look back on the past but also to reconsider how communication is working today in this age of speed when everything is rapidly changing.

<코끼리 수레>, 1999-2001, 293×633×153cm, 수레, 코끼리 조각, 석불좌상, CRT TV 모니터 22대, 전화기, 축음기, 밀차 4개, 우산, 비디오 분배기, 전선, 2-채널 비디오, 컬러, 무성, DVD. 백남준아트센터 소장.

Elephant Cart, 1999-2001, 293×633×153cm, cart, elephant statue, limestone sitting buddha statue, 22 CRT TV sets, telephone, photograph, 4 dollies, umbrella, video distributor, wires, 2-channel video, color, silent, DVD. Nam June Paik Art Center Collection.



©백남준 에스테이트 Nam June Paik Estate

관람시간 화요일...일요일
10:00...18:00

휴관 1월 1일
매주 월요일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을 휴관일로 합니다.)

무료관람

opening hours Tuesday...Sunday
10:00...18:00

closed days January 1st
every Monday (if Monday is a public holiday,
the museum will be closed the following day.)

free admission

작품대여	백남준아트센터	개인소장자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국립현대미술관	두손갤러리	에코랜드
	울산시립미술관	전남도립미술관	프랑크푸르트현대미술관

busanMOC

부산현대미술관
busan museum of
contemporary art

49300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남로 1191
1191, Nakdongnam-ro, Saha-gu,
Busan, 49300, Republic of Korea

+82 051-220-7400-1 (tel)
+82 051-220-7339 (fax)